



"클릭 잇 오어 티켓(Click It or Ticket)" 캠페인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상기합니다

안전벨트 안전 캠페인은 메모리얼 데이까지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2024년 5월 11일): 오렌지 카운티 보안국은 메모리얼 데이 주말을 맞아, 여행객들에게 친구나 가족을 방문할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어린이를 적절한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올해 **클릭 잇 오어 티켓(Click It or Ticket)** 캠페인은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오렌지 카운티 보안국은 추가적으로 경찰을 배치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와 승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를 어린이용 안전 카시트 또는 연령에 맞는 안전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차량이 포함됩니다.

카일 이시이 경사는 "모든 운전자와 탑승자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마다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안전벨트는 인명을 구합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어린이와 성인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12,000명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1년 충돌 사고로 사망한 사람 중 878명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2020년보다 1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어린이는 만 8세 이상 또는 키가 4피트 9인치 이상으로 성장할 때까지 안전 카시트 또는 부스터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어린이는 몸무게가 40파운드 이상이거나 키가 40인치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뒷좌석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재원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에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